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 중의 희곡(戲曲)활동*

김광영**

<目 次>

- 1. 서론
- 2. 《낙양가람기》의 저술 배경
- 3. 《낙양가람기》 중의 희곡활동
- 4. 결론

1. 서론

《낙양가람기》는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기 선비족(鮮卑族) 북위(北魏)의 양현지(楊銜之)¹⁾가 당시의 수도였던 낙양(洛陽)에 건립되었던 수많은 사원 중에서 대표적인 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 40여 곳 사원과 연관된 각각의 내용을 기록한 산문(散文)체 역사 필기(筆記)이다. 이러한 《낙양가람기》는 4·6 변문(駢文)과 산문의 문체가 정제되어 있고 풍격이 전아하며, 저작 중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표현 예술이 북조(北朝) 문인의 풍격과 특색을 대표한다. 그리하여 《낙양가람기》는 후세 산문과 전기(傳記) 및 소설 등 문학체제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었으며, 역도원(酈道元)의 《수경주(水經注)》와 가사협(賈思勰)의 《제민요술(齊民要術)》과 함께 북조 삼서(北朝三書)로 일컬어진다.²⁾

* 본 연구는 2014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1) 양현지의 성씨에 관하여는 역대로 논란이 있어 혹자는 '양(陽)'이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혹자는 '양(羊)'이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양(楊)'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이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좇는다.
- 2) 사람에 따라 《제민요술》 대신 《위서(魏書)》나 《안씨가훈(顏氏家訓)》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낙양가람기》의 배경인 낙양은 북위 왕조의 흥성과 멸망이 나타났던 곳이다. 곧 당시의 낙양은 북위 효문제(孝文帝)가 북쪽의 평성(平城, 지금의 산서성 대동(大同))에서 남쪽의 낙양으로 천도한 494년부터, 효무제(孝武帝)가 우문태(宇文泰)에게 장안(長安)으로 끌려가 서위(西魏)가 세워지고, 남아있던 대신(大臣) 고훈(高歡)이 효정제(孝靜帝)를 내세워 업성(鄴城, 지금의 하남 임장(臨漳))에 동위(東魏)를 건립하여, 북위가 동위와 서위로 나누어졌던 534년 까지 41년간의 낙양을 가리킨다. 효문제가 낙양에 천도한 후 낙양은 정치와 경제 및 문화에 있어서 국제도시로서 최고의 번영기를 이루었다. 이후 효무제를 이은 세종(世宗)은 불교를 숭상하여 많은 불사를 건립하였는데, 이에 따라 지나친 토목공사로 국력은 도리어 쇠락해갔다. 세종 이후 북위는 영태후(靈太后)가 어린 아들을 두고 섭정을 하였는데, 그녀는 불교를 극도로 숭상하여 수많은 불사를 건립하였다. 그리하여 북위 말기에는 낙양에만 1367 곳의 사찰이 있었고, 승려 수도 200여 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나친 불교 숭상은 국가에 도리어 부담이 되어 돌아왔다. 국가의 생산 노동력은 감소하고 재정수입이 줄었으며, 정치에 있어서는 환관이 득세하고 군사적 변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변란으로 끝내 그녀가 죽임을 당한지 얼마 후에 북위는 역사에서 사라진다. 양현지는 자신의 조국인 북위가 이렇듯 흥성하고 멸망해가는 것을 직접 목도하였는데, 특히 북위가 동위와 서위로 나누어진 이후 547년에 자신의 두 번째 요역(徭役)을 수행하기 위하여 낙양을 방문하였을 때 낙양에 있던 이전의 수많은 사원들이 황폐해지고 없어진 것을 보고 감개무량하여 그 걱정의 감정을 《낙양가람기》에 실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자면 《낙양가람기》는 주로 북위의 도성이었던 낙양의 사원을 배경으로 당시의 정치·교통·민속·전설·인물 전기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법회와 재회(齋會)의 불교의식을 배경으로 행하여졌던 여러 불교악무(樂舞)와 산악백희(散樂百戲) 및 거대한 축제성 활동 등이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중국 고전희곡의 형성과 발전사에 있어서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희곡활동이다. 《낙양가람기》의 기록에 보이는 희곡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 북위 시기 낙양의 사원은 종교공간인 동시에 오락적 문화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

시의 사원에서 법회와 재회 행사를 거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교악무나 잡기(雜技) 및 환술(幻術)과 같은 희곡활동을 함께 공연하였다. 아울러 당시의 사원은 인도와 서역과 같은 외국의 선진 악무문화를 수입하는 하나의 경로였다. 그리하여 당시의 사원은 수준높은 선진 악무문화를 공연함으로써 북위의 악무문화의 수준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원의 관점에서 《낙양가람기》에 보인 희곡활동의 양상을 살피고, 아울러 이러한 불교적 희곡활동이 중국의 고전희곡 발전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2. 《낙양가람기》의 저술 배경

양현지의 《낙양가람기》는 당시 북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탄생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배경들을 학술배경과 정치·사회배경 및 종교배경·대의 문화교류의 배경으로 나누어 간략히 서술함으로써 《낙양가람기》의 저술에 담긴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먼저 《낙양가람기》가 탄생한 학술적 배경으로는 효문제(재위471-499)의 개혁정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효문제는 낙양으로 천도를 단행하면서 선비족인 자신들에게 한화(漢化)정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니, 그는 유학을 숭상하여 중원의 한족을 중용하고 국립학교인 국자태학(國子太學)과 사문소학(四門小學) 등을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효문제 시기 북위의 학술은 백화제방의 국면으로 발전하여 경학과 사학 및 문학 등이 크게 발전하였으며³⁾, 《낙양가람기》는 바로 이러한 학술적 배경을 근거로 탄생하였다.

《낙양가람기》라는 뛰어난 저술이 나오게 된 정치적·사회적 배경 또한 효문제의 개혁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효문제는 자신들인 선비족과 한족의 융합을 위하여 한화정책을 강력히 실시하였으니, 그는 자신들의 본래 왕족 성씨인 탁발씨

3) 蔣將 彭必成, 「從《洛陽伽藍記》看北魏都城中外文化交流」, 「宜春學院學報」, 廣西 桂林, 2008.

(拓跋氏)를 원(元)씨로 바꾸고, 모든 선비족들에게 중국식의 성씨로 바꾸도록 시켰다. 아울러 그는 자신들의 언어인 선비어를 없애고 한어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선비족과 한족의 통혼을 적극 장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비족의 복장인 호복(胡服)을 없애고 한복(漢服)을 착용하도록 시켜 선비족을 한족에 동화되도록 하였다. 또 효문제는 균전제(均田制)를 실시하여 북위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촉진시켰고, 낙양 천도 이후 낙양은 매우 흥성하여 도시 상공업과 대외무역이 발달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문화생활이 풍부해지고 종교활동을 매개로 하는 오락활동도 매우 발달하였다.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 《낙양가람기》는 위진남북조 시기의 종교적 성격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기는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 외래종교인 불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던 시기이다. 그것은 위진남북조 시기 동안 백성들은 끊임없는 전쟁으로 피폐하고 힘든 생활을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난세 시기에 불교는 인간의 고난을 구제하는 내용을 제시해 주었고, 사원으로 출가하는 사람에게는 조세와 요역 및 균역을 면제해 주어 백성들에게 커다란 흡인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북위에서는 특히 효문제의 낙양 천도 이후 불교가 흥성하였는데, 효문제는 천도하기 이전의 수도였던 평성(平城)에 세웠던 국립사원의 성격을 지닌 영녕사(永寧寺)와 같은 명칭의 영녕사를 낙양에 건립하였으며, 그는 이 영녕사에 종종 행차하여 법회와 재회를 열었다.⁴⁾ 효문제를 이은 선무제는 불교를 매우 중시하여 그 유명한 용문석굴(龍門石窟)을 만들었으며, 경명사(景明寺) 등 수많은 사원을 건립하여 선무제 시기 전국 주군(州郡)의 사찰 수는 모두 13,727 곳이 되었으니, 효문제 시기 전국 주군에 있던 6,478 곳의 사찰 수와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⁵⁾ 그리하여 수도 낙양에는 금색찬란한 대가람들이 건립되었고, 법사가 거행될 때에는 불교의례가 화려하게 진행되었으며, 불교는 지배계급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깊이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선무제가 33세로 빨리 죽자 6세의 아들 효명제(孝明帝)가 즉위하였으며, 효명제의 어머니인 영태후(靈太后)는 스스로 김(朕)이라고 부르면서 정치를 좌우하였

4) 鎌田茂雄 著, 章輝玉 譯, 《中國佛教史》, 제3권, 도서출판 장승, 1996, 354면.

5) 위의 저서. 357면.

다.6) 북위의 낙양 불교문화는 바로 이 영태후의 친정시기에 정점에 달하였다. 그녀는 불교를 극도로 숭상하여 지상에서의 불국을 실현하려고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영태후 섭정 이후 북위는 혼란해졌고 변란이 자주 발생하여 많은 귀족들이 죽었다. 그리하여 귀족들이 살던 수많은 저택들은 승려들이 머무르는 곳이 되었고, 낙양의 저택은 거의 사원이 되어 버렸다. 특히 534년 낙양을 대표하던 사원인 영녕사의 화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34년 2월 영녕사는 원인을 모른 대화재가 발생하여 사라졌는데, 한때 극성했던 북위의 낙양 불교는 북위의 멸망을 따라 목숨을 다하였다. 곧 534년 10월 북위는 다시 수도를 업성으로 옮기며 멸망하였고, 낙양의 승려들도 업성으로 따라 옮기었다.

한편 《낙양가람기》에는 서역과 인도에서 온 많은 외국 승려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불교문화의 교류를 위해 중국을 찾은 외국 승려들이 《낙양가람기》의 탄생에 일정한 기여를 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례로 《낙양가람기》에 나오는 영명사(永明寺)는 불교를 숭상했던 선무제가 세운 절로서, 당시 경전과 불상을 모시는 일이 낙양에 성행하여 다른 나라 사문(沙門)들이 몰려들기에 폭주를 이루자, 선무제는 그들이 휴식을 취하도록 영명사를 세웠다. 그런데 그 사원의 규모가 방대하여 방이 1,000여 칸이나 되었고, 온 나라 사문들이 3,000여 명이나 되었으며, 대진국(大秦國)인 동로마제국에서 온 사문도 있었다. 또한 중국에서도 불경을 구하기 위해 일찍부터 서역과 인도로 구별 여행을 떠났는데, 《낙양가람기》에는 송운(宋雲)과 혜생(惠生)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서역에 가서 대승경전을 구해 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북위 시기 서역 및 인도와 같은 외국과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낙양가람기》는 바로 이러한 문화교류의 바탕 위에서 탄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6) 위의 저서. 362면.

3. 《낙양가람기》 중의 희곡활동

양현지는 《낙양가람기》에서 사원의 법회나 재회와 같은 종교의식이 거행될 때에는 종교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비종교적이고 오락적인 활동이 동원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중국 고전희곡의 형성과 발전에 일정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서는 《낙양가람기》에 나타난 여러 희곡 활동을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기로 한다. 그러면 먼저 불교의 재회의식에 불교악무가 사용된 점을 간략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자.

[왕전어사]

한관이 만든 사원으로는 가장 뛰어나며, 육재(六齋)의 행사가 있는 날에는 항상 북을 치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⁷⁾

왕전어사(王典御寺)는 환관인 왕도탕(王桃湯)이 세운 사원인데, 당시에는 많은 환관들이 사원을 건립하였다. 그런데 양현지에 의하면 왕전어사는 환관들이 세운 사원 중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한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왕전어사에서는 육재의 재회의식이 거행되는 날에는 반드시 북을 치고 가무가 벌어진다고 한다. 육재는 매달 8일·14일·15일·23일·29일·30일의 여섯날을 말하는데, 이날들에는 사천왕이 천하를 순행하면서 사람의 선악을 살피는 날인 동시에 악귀가 사람들의 틈을 살피는 날이라고 하여 몸을 조심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며 행동을 삼가야 한다.⁸⁾ 승려들은 이날 한 곳에 모여서, 보살은 지켜야 할 계율을 말한다. 그리고 이런 엄격하고 경건한 육재일의 재회의식을 거행하는 동안 반드시 불교악무가 동원되었으니, 육재일에는 반드시 북을 치고 가무가 벌어졌다.

북위 시기 사원은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장소인 동시에 산악백회와 같은 희곡활동이 거행되는 오락장소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낙양가람기》 중 다음의 경략사에서 사원의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자.

7) 宦者招提，最爲入室，至於六齋，常擊鼓歌舞也。《낙양가람기》 권4, 성서(城西) 〈왕전어사(王典御寺)〉.

8) 양현지 저 서윤희 역 《낙양가람기》, (주)놀와, 2001, 58면.

[경락사]

(육재일(六齋日)이 되면 항상 女樂을 두어서, 노래소리가 대들보를 맴돌고 춤추는 소매가 서서히 빙글 돌았다. (또) 관악기와 현악기의 낭랑한 소리가 조화롭고 절묘하여 入神의 경지였다. 이곳은 비구니 절이어서 남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는데, 가서 본 자들은 천당에 들어왔다고 여겼다. …… 여러 종류의 음악을 불러서 절 안에서 자신의 기예를 드러내게 하였는데, 기이한 새와 짐승들이 불전의 마당에서 기뻐 날뛰며 춤을 추었으며, 공중으로 날아 현혹시키는 환술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다. 기이한 재능과 기술이 그 속에 모두 정수만 모여드는 것이다. 예를들면 당나귀의 사지를 해체하거나 이를 우물에 던져 잉어를 낚아 올리거나, 또는 즉석에서 대추를 심고 오이를 심어 눈 깜짝할 사이에 열매를 따서 모두에게 먹어보도록 하는 환술(幻術) 등이다. 이것을 본 남녀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⁹⁾

경락사(景樂寺)는 문헌왕(文獻王)이 세운 사원이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경락사에서는 육재의 재회일이 돌아오면 춤추고 노래하는 여자 예인들인 여악(女樂)을 두었는데, 이들이 공연한 불교악무는 매우 수준이 높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여악들의 노래소리는 대들보를 맴돌아 여향(餘響)이 남아 있는 아주 훌륭한 노래였고, 춤추는 옷소매가 서서히 빙글 도는 우아한 모습을 지녔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악무에 관악기와 현악기의 낭랑한 소리가 조화롭고 절묘하여 입신의 경지에 들어갈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인용문의 경락사에서는 우아하고 경건한 이러한 불교악무를 공연했을 뿐만 아니라 세속적 오락을 제공하는 악무와 잡기 및 환술 등의 산악백희와 같은 희곡활동이 공연되었다. 곧 경락사에서는 음악에 능한 여러 악사들을 불러 모아 그 절 안에서 멋진 기예를 펼쳐 보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절의 불전에서 기이한 새와 짐승들이 기뻐 날뛰며 춤을 추었으며, 공중으로 날아올라 사람을 현혹시키는 환술을 공연하였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으로서, 기이한 재주와 재능

9) 至於六齋，常設女樂。歌聲繞梁，舞袖徐轉。絲管寥亮，諧妙入神。以是尼寺，丈夫不得入，得往觀者，以爲至天堂。召諸音樂，逞伎寺內，奇禽怪獸，舞扑殿庭。飛空幻惑，世所未睹。異端奇術，總萃其中。剝臚投井，植棗種瓜，須臾之間，皆得食之。士女觀者，目亂睛迷。《낙양가람기》，권1, 성내(城內)

이 모두 모인 것 같았다. 위에 의하면 경락사에서는 특히 여러 환술을 공연하여 사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신통한 미술적 오락을 제공하였다. 기실 북위 시기 당시의 낙양에는 서역에서 수 많은 승려들이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 와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불교악무에 능한 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불교의 신통함을 보여주기 위해 환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사원에서는 법회나 재회의 의식이 있던 날에는 이러한 환술을 자주 공연하였다. 위의 인용문에는 당시의 환술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환술이 보인다. 먼저 미술의 일종으로서 당나귀의 사지를 각기 해체했다가 다시 살려내는 것이 보이고, 물건을 우물에 던져 넣어 잉어를 만들어냈으며, 또 대추와 오이를 죽석에서 심더니 곧바로 대추와 오이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관중들에게 먹어 보도록 하였다.

서역에서 온 승려가 환술을 사용하는 예는 그들이 세운 사원에서 특히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으니, 서역승인 오장국(烏場國)의¹⁰⁾ 사문 담마라(曇摩羅)가 세운 법운사(法雲寺)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러면 《낙양가람기》에서 환술의 회곡활동을 사용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기록을 신고 있는 법운사의 조항을 살펴보자

[법운사]

서울의 사문으로서 인도 불법을 좋아하는 자들은 모두 담마라에게 가서 그로부터 불법을 받는다. ……, 그가 외우는 주문(呪文)은 신비하고 응험이 있어 현실에서는 있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다. 이를테면 말라죽은 나무에 주문을 외우면 능히 가지와 잎이 살아나고, 사람에게 주문을 외우면 사람이 당나귀와 말로 변하는 따위로서 이를 본 사람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자가 없다.¹¹⁾

담마라는 서역 오장국에서 온 호승(胡僧)으로서 《낙양가람기》에 의하면 중국에 도착한 이후 중국어와 그 당시 사용하던 예서(隸書)에 통효하여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고, 불전(佛殿)과 승방(僧房)을 모두 인도식으

10) 고대 국명으로 인도 북부에 있었으며 그 영토는 시대에 따라 변하여 지금의 인도와 네팔 경계 지역에 있었음.

11) 京師沙門好胡法者，皆就摩羅受持之，……，秘呪神驗，闍浮所無，呪枯樹能生枝葉，呪人變爲驢馬，見之莫不驚怖。《낙양가람기》，권4, 성서(城西).

로 꾸몄다고 한다. 그리고 서역 승려로서 담마라의 특이함은 그가 몸소 환술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위에 의하면 담마라가 외우는 주문은 신비하고 응험이 있었으니, 말라죽은 고목에 주문을 외우면 싱싱한 가지와 잎이 살아났고, 사람에게 주문을 외우면 사람이 당나귀나 말로 변신하였다. 물론 담마라의 이러한 환술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신통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 고전희곡의 발전사에서 볼 때 환술은 고전희곡의 형성과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중국 최초의 진정한 가무희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 시기 「동해황공(東海黃公)」에서 환술이 핵심적인 고사로 사용되었음이 증명하고 있다.

사원에서 법회와 재회의식을 거행할 때 불교악무를 사용하고 아울러 백희와 환술 같은 희곡활동을 동원한 것은 당시의 사원 특히 규모가 큰 사원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낙양의 선허사(禪虛寺)에서는 한나라 시기 성행하였던 각저희(角觝戲)를 공연하였으며, 황제는 누대에서 그들의 재주를 관람하였으니, 여기서는 그 기록을 살펴보자.

[선허사]

사원 앞에는 열무장(閱武場)이 있어 연말 농한기가 되면 군사들이 전투를 연습하여 천승만기(千乘萬騎)가 항상 이곳에 모여든다. 우림랑(羽林郎) 마승상(馬僧相)이라는 자가 각저희에 뛰어나 그가 던지는 창은 백 척 나무 꼭대기 높이까지 올라가며, 호분랑(虎賁郎) 장거거(張車渠)는 던져 올린 칼이 누대보다 한 길 더 올라갈 정도이다. 황제 역시 누대에서 그들의 재주를 관람하며 항상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저희의 대련을 벌이도록 한다.¹²⁾

각저희는 중국의 진·한(秦·漢) 시기에 발생한 백희로서 두 사람이 힘이나 기예·활쏘기·말타기를 겨루는 것을 말하며, 후세에는 백희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인용문에 의하면, 선허사에는 사원 앞에 열무장이 있어서 연말 농한기가 되면 수많은 군사들이 전투를 연습하였다. 그런데 이들 군사들 중 특히 빼

12) 寺前有閱武場，歲終農隙，甲士習戰，千乘萬騎，常在於此。有羽林馬僧相善角觝戲，擲戟與百尺樹齊等，虎賁張車渠，擲刀出樓一丈，帝亦觀戲在樓，恒令二人對爲角戲。《낙양가람기》，권5, 성북(城北)

어난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명은 궁궐 수비군인 우림군의 마승상이라는 자이고, 또다른 한 명은 궁중 의장대인 호분랑의 장거거이다. 이들은 각기 창던지기과 칼던지기에 뛰어나 마승상은 창을 백 척 나무 꼭대기 높이까지 던졌고, 장거거는 칼을 누대보다 한 길 더 높이 던졌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각저희가 공연될 때 황제가 몸소 사원에까지 와서 누대 위에서 관람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위 시기 사원은 궁정에 못지 않은 훌륭한 공연장의 기능을 하였으며, 이러한 점은 중국의 고전희곡 형성과 발전사에서 사원이 상당한 공헌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위 시기 사원은 법회와 제회의식을 거행할 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악무와 잡기 및 환술과 같은 백희를 공연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희곡 공연을 동반한 군중성 축제형의 희곡활동을 진행하였다. 양현지는 당시 낙양에서 거행되던 거대한 규모의 축제성 불교의식을 목도하고서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니, 소위 행상(行像)이 그것이다. 행상은 본시 인도에서 기원한 국가적인 종교의식으로, 부처가 열반한 후 제자들이 부처탄생일에 수레에 불상을 태우고서 거리를 순행하는 가두행렬의 방식에서 비롯하였다. 행상의식은 서역을 통하여 중국에 전래되어 당시 북위에서는 국가적인 종교의식으로 거행되었다. 그러면 먼저 행상의식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는 소의니사(昭儀尼寺) 조항을 살펴보자.

[소의니사]

절에는 불상 한 구와 보살상 두 구가 있으며, 그 조소(彫塑)의 공교함은 아주 뛰어나 낙양에는 더 이상 비견할 만한 것이 없었다. 4월 7일, 이 삼존상이 항상 경명사(景明寺)에 도착하면 경명사의 삼존불도 항상 나와서 이들을 영접한다. 그때 기악(伎樂)의 성대함은 유등(劉騰)의 장추사(長秋寺)와 서로 비슷하다.¹³⁾

소의니사는 환관들이 건립한 사원으로, 《낙양가람기》에 의하면 영태후(靈太后)가 섭정할 때 환관들을 매우 총애하여 그들이 정권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

13) 寺有一佛二菩薩，塑工精絕，京師所無也。四月七日，常出詣景明，景明三像恒出迎之，伎樂之盛，與劉騰相比。《낙양가람기》 권1, 성내(城內)

에 환관들의 집에는 금이 넘쳐날 정도로 쌓였다고 한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소의니사의 행상의식은 4월 7일에 거행되었다. 불당에는 삼존 불상이 있었는데, 그 조소의 공교로움이 매우 뛰어나 낙양에서는 최고였으며, 가운데 본존 불상을 두고 좌우에 협시(脇侍) 보살상을 두었다. 이들 삼존상이 행상의식에 맞추어 소의니사를 나와 마지막 집결지인 경명사에 도착하면, 경명사에서는 경명사의 불상을 내와 이들 삼존상을 맞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상의식에는 불교악무가 동원되는데, 동원된 기악이 매우 성대하여 당시 환관을 대표하고 있던 유등이 세운 장추사에서 동원된 기악과 비슷하였다.

대규모의 균중성 가두행렬 방식의 불교 종교의식인 행상의식은 낙양의 도성 시민이 대부분 참가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참가했으며, 행상의식에는 잡기와 악무와 같은 희곡활동이 동원되어 축제적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의 종성사(宗聖寺) 항목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잘 나타나 있으니 이를 살펴보자.

[종성사]

종성사에는 불상 한 구가 있다. 높이가 3장 8척으로 단정하고 장엄함이 매우 뛰어나며 부처님의 상호(相好)를 모두 갖추고 있다. 사람들이 우러러 쳐다보고는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이 불상이 한번 행상에 나르면 시중 사람들이 모두 구경을 나와 집이 텅 빌 정도이며 빛나는 광채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그때 펼쳐지는 묘기와 잡악(雜樂)은 유등이 세운 장추사에 버금갔다. 성의 동쪽에 사는 많은 남녀들이 이 절에 와서 구경하였다.¹⁴⁾

위의 인용문은 종성사에서 행하여지던 행상의식을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종성사에는 불상 한 구가 모셔져 있는데, 단정한 장엄한 모습이 매우 뛰어나며 부처님의 32종 대인상(大人相)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사람들이 우러러 쳐다보면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불상이 한 번 행상에 나르면 낙양 도성의 사람들이 구경을 모두 나와서 집이 텅 빌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경건한 행상의식

14) 宗聖寺有像一軀，高三丈八尺，端嚴殊特，相好畢備，士庶瞻仰，目不暫瞬。此像一出，市井皆空，炎光輝赫，獨絕世表。妙伎雜樂，亞於劉騰，城東士女，多來此寺觀看也。《낙양가람기》，권 2, 성동(城東)

중에는 잡기와 악무 등이 공연되어 구경 나온 이들에게 오락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잡기와 악무의 성대함은 당시 환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등이 세운 장추사에 버금갈 정도였다.

《낙양가람기》 중 경흥니사(景興尼寺) 조항에서는 행상의식에 사용된 수레의 화려한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특히 천상의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건달바와 긴나라가 허공을 날며 기악을 연주하는 비천상의 모습도 보인다. 그러면 경흥니사에 나타난 행상의식의 양상과 희곡활동을 살펴보자.

[경흥니사]

절에는 (행상 때 쓰는) 땅에서 3 장 높이의 금불상을 싣는 수레가 있다. 수레 위에는 보개(寶蓋)가 펼쳐져 있고 사면에는 금방울과 칠보로 된 구슬이 늘어뜨려져 있다. 기악(伎樂)을 연주하는 비천상(飛天像)은 바라 보면 구름 위에 있는 듯하며, 솜씨가 매우 정교하여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불상이 나가는 (행상)날에는 항상 금위군(禁衛軍) 백 명을 불러 이 불상을 들게 하였고, 악기를 다루는 이와 잡기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황제의 뜻에 따라 보내졌다.¹⁵⁾

경흥니사는 《낙양가람기》에 의하면 환관들이 함께 건립한 사원이다. 인용문은 행상의식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기술하고 있으며, 먼저 행상의식에 사용된 수레에 대한 화려한 장식을 언급하고 있다. 위에 의하면 행상의식이 거행되던 날 불상을 싣는 수레 위에는 화려한 보개로 지붕을 엮었으며, 수레의 사면에는 금방울과 칠보 구슬이 늘어뜨려져 있다. 그리고 수레에 특히 아름다운 점은 허공을 날며 천상의 비천기악을 연주하고 있는 비천상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구름 위에 있는 듯하며, 솜씨가 심히 정교하여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다. 다음으로 위의 인용문은 행상의식을 황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곧 행상의식에 사용된 경흥니사의 불상은 너무 소중하므로 황제는 특별히 황제의 궁궐을 지키는 금위군 100명을 동원하여 이 불상을 들게 하였고, 아울러 행상의식에 사용된 악무

15) 有金像輦，去地三丈。上施寶蓋，四面垂金鈴七寶珠，飛天伎樂，望之雲表。作工甚精，難可揚推，像出之日，常詔羽林一百人舉此像，絲竹雜伎，皆由旨給。《낙양가람기》，권2, 성동(城東).

공연을 위하여 항제가 음악과 잡기를 하는 사람을 공급하도록 지시하였다.

《낙양가람기》에는 환관들이 건립한 사원이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사원들 중 가장 으뜸으로는 역시 장추경(長秋卿) 유등이 세운 장추사라고 할 수 있다. 장추경은 본시 황후를 가까이 모시는 신하로서 흔히 환관들이 이러한 벼슬을 갖게 되는데,¹⁶⁾ 유등은 대장추경 벼슬을 한 적이 있었으며, 후에 이러한 연유로 장추사를 건립하였다. 그러면 장추사에 보인 행상의식의 양상과 희곡활동을 살펴보자.

[장추사]

여섯 개의 상아가 달린 흰 코끼리 형상이 석가모니를 허공에 태우고 있는 모습을 제작하여 세워두었다. 불상의 장식은 모두 금과 옥을 사용하여 장엄하였으며, 만든 솜씨가 뛰어나 말로 모두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다. 4월4일, 이 불상이 항상(行像을) 나가는데, 악을 물리치는 벽사사자(辟邪獅子)가 그 앞을 인도하였다. 칼을 삼키고 불을 토하는 백희가 한편에서 요란하게 펼쳐지고, 장대를 타고 줄을 오르는 재주도 괴상하고 특이했으며, 기이한 재주와 특이한 의복이 도시에서 으뜸이었다. (행상 중간) 불상이 멈추는 곳에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을 둘러친듯 많아서 서로 간에 밟거나 뛰어넘어 죽는 자가 항상 생겨났다.¹⁷⁾

위에 의하면 장추사에는 여섯 개의 상아가 달린 흰 코끼리가 부처님을 태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부처님이 탄생할 때의 모습을 조각하여 장식하였음을 보여준다. 곧 석가모니불께서는 태어날 때 여섯 마리 흰 상아 코끼리를 타고 큰 광명을 발하며 탄생하였다고 한다. 인용문에 의하면 장추사의 행상의식은 4월 4일에 시작하였으며, 악을 물리치는 벽사사자가 맨 앞에서 행상 대열을 인도하였다. 물론 여기서의 벽사사자는 사람이 사자의 분장을 하고서 참여한 것이다. 그리고 행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잡기와 환술과 같은 희곡활동이 공연되었다. 곧 칼을 삼키고 불을 토하는 대표적인 환술이 공연되었고, 아울러 장대오르기와 불타기 등의 잡기가 공연되었는데, 그들의 신기한 묘기와 독특한 의복은 낙양 도시에서는

16) 양현지 저 임동석 역, 《낙양가람기》, 동서문화사, 2013년, 138면.

17) 作六牙白象負釋迦在虛空中。莊嚴佛事，悉用金玉，工作之異，難可具陳。四月四日，此像常出。辟邪獅子導引其前。吞刀吐火，騰驤一面，彩幢上索，詭譎不常。奇伎異服，冠於都市。像亭之處，觀者如堵，迭相踐躍，常有死人。《낙양가람기》，권1, 성내(城內).

가장 으뜸이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가두행렬 방식의 행상의식을 보러 온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 마치 벽을 두르듯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로 말미암아 서로 밟고 뛰어오르다가 죽는 사고가 늘 발생하였다.

《낙양가람기》에서 행상의식의 양상을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불교를 매우 숭상하였던 황제인 선무제가 경명(景明, 500-503) 연간에 세운 경명사(景明寺)에 관한 항목이다. 그러면 경명사에 보인 행상의식의 양상과 이에 따른 희곡활동을 살펴보자.

[경명사]

당시는 사람들이 복을 빌기 좋아하여 4월 7일에는 도성의 모든 불상들이 이 절로 보내졌다. 상서사부조(尙書祠部曹)¹⁸⁾에 등록된 불상은 무릇 1000여 구이다. 4월 8일이 되면 차례대로 선양문(宣揚門)에 들어가 창합궁(闕闔宮)앞으로 향하여 황제의 산화의식(散花儀式)을 받는다. 이때 금으로 만든 꽃에 햇빛이 비치고, 보개(寶蓋)는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했으며, 깃발은 숲과 같고, 향의 연기는 안개 같았으며, 범패의 음악과 설법 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여러 가지 기예꾼들이 채주를 펼쳐 곳곳마다 사람들이 늘어섰다. 유명한 스님들과 덕이 높으신 분들이 석장(錫杖)을 짚고 한 무리를 이루었고, 신도와 승려들이 꽃을 지닌채 한 무리가 되었으며, 수레와 말은 도로에 가득하여 서로 이어져 있었다. 당시 서역의 오랑캐 사문이 이것을 보고서 불국(佛國)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¹⁹⁾

경명사는 당시 낙양에 있던 사원 중에서 불교를 숭상했던 영태후(靈太后)가 건립했던 영녕사(永寧寺)와 함께 가장 화려한 사원으로 행상의식의 중심 센터이다. 인용문에 의하면 행상의식은 4월 7일에 낙양 도성에 있는 모든 불상들이 경명사로 집합하는데, 당시 사원에 관한 일을 주관하던 상서사부조에 등록된 불상은 1000여 구라고 한다. 본격적인 행상의식은 부처의 탄생일인 4월 8일에 실시되었다. 먼저 행상 행렬은 낙양성 남문의 선양문을 들어가 황제가 기거하는 창합궁을

18) 尙書에 소속된 祠部曹로서 天文·卜祝·僧尼의 簿籍을 담당하였다.

19) 時世好崇福。四月七日，京師諸像皆來此寺，尙書祠曹錄像凡有一千餘軀。至八日，以次入宣揚門，向闕闔宮前受皇帝散花。于時金花映日，寶蓋浮雲，幡幢若林，香煙似霧，梵樂法音，聒動天地。百戲騰驥，所在駢比，名僧德衆，負錫爲群，信徒法侶，持花成藪，車騎填咽，繁衍相傾。時有西域胡沙門見此，昌言佛國。《낙양가람기》，권3，성남(城南)

향하여 황제의 산화의식을 받는데, 산화의식은 행상의식의 클라이맥스이다. 산화 의식은 황제가 높은 누대 위에서 창합궁으로 들어온 불상을 위하여 꽃을 뿌리는 의식으로서, 불상들은 산화의식을 받아야만 정식적인 종교의식을 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불상을 실은 수레는 금으로 만든 화려한 꽃들이 햇빛에 빛나고, 수레 덮개인 보개는 구름 위에 떠있는 듯했으며, 많은 깃발은 숲과 같았고, 피어오르는 향은 안개 같았다. 그리고 행상의식의 정점을 축하하기 위해 불교악무가 동원되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커 천지를 울렸다고 한다. 또한 불교악무 뿐만 아니라 여러 기예꾼들의 희곡활동이 공연되었는데, 이를 보기 위해 수레와 말이 도로에 가득하여 서로 이어졌고, 유명한 스님들과 덕이 높은 사람들이 석장을 집고서 무리를 이루었으며, 수 많은 신도와 승려들이 꽃을 든채 한 무리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것을 본 서역에서 온 사문은 여기가 바로 불국(佛國)이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당시 경명사에서 행하여진 행상의식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알 수 있고, 아울러 이를 위해 동원된 불교악무와 산악백희 등의 희곡활동도 성대하게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6세기 북위의 낙양에서 거행된 가두행렬방식의 대규모 축제형 행상의식은 본시 인도에서 기원한 것으로 서역을 거쳐 중국에 전래된 것이다. 이러한 행상의식에 관한 기록은 《낙양가람기》를 제외하고도 중국의 문헌에 보이는데, 그 중 특히 《낙양가람기》보다 1세기 앞선 5세기에 구법승 법현(法顯)이 서역과 인도를 여행하고 돌아와 그 건문을 기록한 《불국기(佛國記)》에는 서역 우전국(于闐國) 지금의 중국 신강성 화전(和田)시 지역)에서 행하여지던 행상의식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구마제(瞿摩帝) 사원의 승려들은 대승을 배우고 국왕이 존중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행상을 한다. 성(城)에서 3·4리(里) 떨어진 곳에서 불상을 태운 네 바퀴 수레를 만드니 그 높이가 3丈 정도이고 모양은 마치 움직이는 전당과 같다. (사륜거는) 칠보(칠보)七寶로 장식하고 비단으로 만든 깃발과 일산(日傘)을 매달았으며, 불상은 수레 안에 선 모습으로 안치하고 두 보살이 모시게 한다. (또) 여러 천신(天神)을 만들어 시종들게 하였는데, 모두 금은으로 조각하고 장식하여 허공에 매달리게 하였다. 불상을 모

신 수레가 성문에서 100보에 이르면 국왕은 왕관을 벗고 새 옷으로 바꾸어 입고는 맨발로 손에 꽃과 향을 들고 양쪽에 시종들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온다. (그리고는) 불상을 맞이하여 머리와 얼굴을 불상의 발에 대고 절을 하며, 꽃을 뿌리고 향을 사른다. 불상이 성에 들어올 때, 문루(門樓) 위의 왕비와 궁녀들이 여러 가지 꽃을 뿌려대니 꽃들이 어지러이 아래로 떨어진다. 이와같이 장엄한 모습들은 수레마다 각기 달랐고, 한 사원이 하루씩 행상을 하므로 4월 1일에 시작하여 4월 14일에야 행상이 끝났으며, 행상이 끝나야 왕과 왕비는 환궁한다.²⁰⁾

《불국기》에 의하면 법현은 위의 구마제 사원에서 행하여진 행상을 보기 위하여 나머지 일행들이 모두 구마제사원을 떠났는데도 홀로 3개월을 우전국에 머물러 이러한 대형 종교의식을 목도하였다고 한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행상의식 중 불상을 태운 수레의 화려함은 《낙양가람기》와 거의 같다. 수레는 칠보로 장식되고, 비단으로 만든 일산과 깃발을 매달았다. 북위 낙양에서 행하여진 《낙양가람기》의 6세기 행상의식과 서역 우전국에서 5세기에 행하여진 행상의식의 분명한 차이점은 불상을 대하는 통치자의 모습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북위 통치자인 황제는 자신이 창합궁에서 불상에게 꽃을 뿌리는 산화의식을 행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불국의 주재자인듯 의식을 행하였다. 그러나 이에 비해 우전국 국왕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곧 우전국의 국왕은 불상을 모신 수레가 성문 100보 앞에 도착하면, 국왕은 왕관을 벗고 새옷으로 갈아입고, 맨발로 손에 꽃과 향을 들고서 양쪽에 시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와, 불상을 맞이하여 머리와 얼굴을 불상의 발에 대고 절을 하며 꽃을 뿌리고 향을 사른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낙양가람기》에 보인 행상의식이 《불국기》에 보인 서역 우전국에서 행하여진 행상의식보다 더욱 세속화되고 중국화되어 종교적 경건함이 많이 사라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0) 瞿摩帝僧，是大乘學，王所敬重，最先行像，離城三四里，作四輪像車，高三丈餘，狀如行殿，七寶莊校，懸繒幡蓋，像立車中，二菩薩侍，作諸天侍從，皆以金銀彫瑩，懸於虛空，像去門百步，王脫天冠，易著新衣，徒跣持花香，翼從出城，迎像頭面禮足，散花燒香，像入城時，門樓上夫人媠女，遙散衆花，紛紛而下，如是莊嚴供具，車車各異，一僧伽藍則一日行像，自月一日，爲始至十四日，行像乃訖，行像訖，王及夫人，乃還宮耳。《불국기》。

4. 결론

《낙양가람기》는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기 북위의 양현지가 저술한 것으로, 양현지는 북위의 효문제(孝文帝)가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부터 나중에 북위가 동위와 서위로 분리되어 망하기까지 41년 동안 낙양에 있던 수많은 사원들의 흥망성쇠를 배경으로 당시 사원과 연관된 정치·경제·문화·전설·인물 등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체 필기이다. 그런데 이러한 《낙양가람기》에는 당시의 희곡활동과 연관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불교와 연관된 불교악무와 환술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전희곡의 형성과 발전에 일정한 공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낙양가람기》는 일정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는데, 당시의 학술적·정치사회적·종교적·대외문화교류의 배경 아래에서 탄생하였다. 먼저 학술적인 배경으로는 낙양 천도 후 효문제의 개혁정책을 들 수 있다. 그는 유교를 숭상하여 국자대학과 사문소학 등을 설치하여 백화제방의 학술풍조를 조성하였다. 정치사회적 배경 또한 효문제의 개혁정책과 연관을 맺는다. 효문제는 선비족인 자신의 성씨를 탁발씨(拓跋氏)에서 원씨(元氏)로 바꾸고 선비족과 한족의 통혼을 장려했으며, 선비족의 언어를 없애고 중국말을 사용하도록 시켰으며, 의복도 중국식의 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균전제를 실시하는 등 경제가 변형하여 북위는 번영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선무제는 불교를 너무 숭상하여 사원을 많이 건립하였고 이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국력의 쇠퇴로 이어졌으며, 이후 등장한 영태후는 불교를 극도로 숭상하여 수많은 사원을 건립하였다. 그리하여 북위 말기에는 낙양과 전국에 사원이 너무 증가하고 승려의 수가 너무 증가하여 요역과 균역을 면제받은 전국의 승려 수가 200만에 가까워 결국 북위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534년에 멸망하였다. 양현지는 이러한 낙양의 모습을 직접 목도하고 547년에 낙양을 찾아 낙양성에 있던 40여 곳의 사원을 중심으로 각 사원과 연관된 내용을 기술하였다.

《낙양가람기》 중의 사원은 종교의식의 거행지였지만 한편으로는 세속적 오락장

소로서의 기능을 이행하였다. 북위 시기 당시의 낙양성의 사원에서 중대한 법회와 재회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불교악무나 잡기 및 환술 등과 희곡활동이 함께 공연되었다. 이러한 희곡활동은 자체적으로 오락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불교를 선양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한편 당시의 사원은 서역과 인도 등지에서 수준높은 선진 악무문화를 수입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 당시의 사원은 대외 문화교류의 한 루트로 기능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에서 볼 때 《낙양가람기》에 보인 대표적인 희곡활동으로는 불교악무와 잡기 및 환술 등이 있었고, 이것들은 각기 중국 고전희곡의 형성과 발전사에 있어서 일정한 공헌을 하였다. 특히 《낙양가람기》에 보인 행상의식은 본시 인도에서 기원한 것이지만 중국에 전래되어 거대한 규모의 축제성 희곡활동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상의식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불교악무나 잡기 및 환술 등이 동원되어, 국가적 종교의식인 행상의식은 종교적 경건함과 함께 세속적 오락성을 함께 지니는 것이었다.

〈參考文獻〉

- 張晶, 〈佛敎樂舞之禪意審美〉, 《樂府新聲》, 2010年 2期, 2010.
- 閻萬鈞, 〈昭武九姓國及其音樂舞蹈藝術之東傳〉, 《敦煌學輯刊》, 1986年 2期, 1986.
- 趙文潤, 〈隋唐時期西域樂舞在中原的傳播〉, 《陝西師範大學學報》, 26卷 1期, 1997.
- 郭可慤, 〈《大唐西域記》與唐代中原西域的文化互動〉, 《中州學刊》 3期, 2009.
- 趙世騫, 〈試論西域樂舞對中原的影響〉, 《新疆師範大學學報》, 1987年 1期, 1987.
- 蘇鉉淑, 〈皇權과 불교의례: 北魏 行像과 梁의 無遮大會〉, 《중국고중세사연구》, 2013.
- 강춘애, 〈行像儀式과 街頭演戲〉, 《동양연극연구》 제1호, 2000.
- 허동성, 〈인도연극과 行列儀式〉, 《동양연극연구》 제1호, 2000.
- 趙晶, 〈霓裳羽衣溯源〉, 《青海師專學報》, 1986年 2期, 1986.
- 陶爾夫, 〈論宗教與詞體的興起〉, 《佳木斯大學學報》 1998年 2期, 1998.
- 王嶸, 〈西域樂舞東傳及其在中原文化中的地位〉, 《新疆藝術》 2001年 1期, 2001.
- 정수일 저, 《고대문명교류사》, 서울: 사계절출판사, 2001.
- 周菁葆 著, 《絲綢之路—佛敎文化研究》,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2009.

- 蘇北海 著, 《絲綢之路》—龜茲研究,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2009.
- 金秋 著, 《古絲綢之路樂舞文化交流史》, 上海: 上海音樂出版社, 2002.
- 庄永平 著, 《戲曲音樂史概述》, 上海: 上海音樂出版社, 1990.
- 高勝吉 著, 《동양연극연구》,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1993.
- 김규현 역주, 《불국기》, 서울: 글로벌컨텐츠출판사, 2013.
- 季羨林 著, 《大唐西域記校注》, 北京: 中華書局, 2012.
- 王功恪 王建林 著, 《龜茲古國》, 重慶: 中慶出版社, 2008.
- 李强 著, 《中西戲劇文化交流史》, 北京: 人民音樂出版社, 2002.
- 王克芬 著, 《中國舞蹈發展史》, 上海: 世紀出版社, 2003.
- 向達 著, 《唐代長安與西域文明》, 重慶: 重慶出版社, 2009.
- 王昆吾 著, 《隋唐五代燕樂雜言歌辭研究》, 北京: 中華書局, 1996.
- 黃敏枝 著, 임대희 역, 《중국역사상의 불교와 경제》-당대편, 서울: 서경문화사, 2002.

〈Abstract〉

Yang Xuanzhi (Chinese: 杨炫之) was a Chinese writer and translator of Mahayana Buddhist texts into the Chinese language, during the 6th century, under the Northern Wei Dynasty.

A Record of Buddhist Monasteries in Luo-yang by Yang Xuanzhi has been acclaimed as a prose classic of the Northern Wei Dynasty. Adopting the attitude of a historian, Yang provided complete, detailed and accurate records of Buddhist temples' distribution in Luo-yang, as well as major monasteries' history, architecture and relevant Buddhist activities. Owing to its description of the popularity of Buddhism in Luo-yang, the book, as well became an important Buddhist classic. In addition, from palace coups to the life of ordinary people, it presents a panorama of the capital city including its government setup and social economy. What's more, Yang used the past to criticize the present, with narration interspersed with bits of comments, highlighting the book's role as "a mirror for government".

One day more than 1,000 years ago, an official of the Eastern Wei Dynasty (534-550AD) was writing at home a biography about the capital of the previous dynasty.

It was Yang Xuanzhi, who once served as a Northern Wei military officer eligible to attend the morning court.

When the temples in Luoyang, for example Jingmingsi, held religious ceremony, Buddhist dance and music including acrobatics and magic activity are performed. And Buddhist dance and music including acrobatics and magic activity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Chinese classic drama. From such point, the temples in Record of Buddhist Monasteries in Luo-yang have function of holding religious ceremony and entertainment. Particularly when parade of statue of the Buddha was performed, Grand Buddhist dance and music including acrobatics and magic activity are performed.

Key word: Yang Xuanzhi, Record of Buddhist Temple in Luoyang, Buddhist Dance and Music, Buddhist Ceremony, Magic, Acrobatics, Religious Ceremony, Entertainment

주제어: 《洛陽伽藍記》, 佛教樂舞, 雜技, 幻術, 戲曲活動, 娛樂性, 行像儀式

이 논문은 2014년 4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5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5월 20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